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11) 259-269

마을 풍수의 문화생태*

- 지리산권역의 마을을 사례로 -

최 원 석**

Cultural Ecology on the Village Fengshui*

Choi, Won Suk**

요약 : 전근대사회의 풍수는 마을주민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문화생태적 환경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국지환경에 대해 풍수형국이라는 상징체계로 관계를 맺고 대응하였다. 마을 풍수를 통한 문화생태적 기능은 마을의 공간적 입지 규정, 인구 유입, 마을공동체의 생산·건축 활동 및 토지이용규제, 마을의 환경수용능력 규준, 환경관리,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환경 의식 및 태도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마을 풍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적 적응전략으로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화생태적 방식이자 지식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마을, 풍수, 풍수형국, 문화생태, 문화적 적응, 문화생태마을, 지리산권역.

Abstract : The meaning of fengshui was another 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 pre-modern society in Korea. Village residents made interrelations with village natural environment by the medium of the geomantic landscape. The functions of cultural ecology through the village fengshui are as follows; the spatial location, the population inflow, the regulation of the community's production or construction or land-use, the adjustment of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forming of the collective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attitude. Village fengshui is a cultural adaptation strategy to the local environment for the village residents. Fengshui can be evaluated as a traditional cultural ecological way and knowledge system for keeping sustainable village environment in East Asia.

Key Words : village, fengshui, geomantic landscape, cultural ecology,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ecological village, Jirisan(智異山) region

1. 머리말

마을은 처한 자연환경 조건에서 개인의 삶과 집단의 공동체적 문화가 영위되는 단위 공간으로서 중요한 인문지리의 연구대상이자 지역문화의 연구주제이다. 마을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는 자연,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풍수도 전통촌락의 입지 및 경관 구성, 주민들의 환경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적 요인이었다.

공동체적 주거단위공간으로서의 마을은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이 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주민집단의 문화적 속성과 관련된 마을생태와 마을경관에 대한 연구는 문화생태적 접근이 긴요하고도 유용하다. 특히 마을생태를 이루는 문화적 환경요소 중에서 한국의 전통마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풍수였다. 풍수는 오랫동안 지리산권 마을의 입지, 경관구성, 주민들의 자연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적 적응 요소였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문화생태적 적응전략의 형태와 기능에서 풍수적 접근은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 문화생태란 한 문화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문화 습성과 자연환경과의 교호작용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문화와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밝혀 설명하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풍수를 매개로 한 한국인과 한국의 자연과의 관계는 흥미롭고도 특이한 문화생태학 분야의 연구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361-AM0015).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H.K.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wschoe@empal.com)

제가 될 수 있다(윤홍기, 2010, 52). 문화생태학은 인간(문화)와 환경의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의 시스템을 전제한다. 문화생태학의 주요 개념은 '文化的 適應'으로 인간의 자연 적응 전략에 대한 구조, 형태, 기능의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류제헌, 1994, 38-40). 특히 풍수는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기 위한 인간의 환경적응전략에 기초하고 있다(Ock, Han Suk, 2007, 767). 문화생태적 프로세스가 가시화된 것이 문화경관이며, 전통마을은 문화생태적 경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취락단위이다.

풍수문화와 풍수경관은 한국적 문화생태, 경관생태의 전형적 요소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연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풍수적 자연 인식 및 관계의 생활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문화생태적 결과물이다. 풍수문화가 잘 보전된 마을은 한국적인 문화생태마을의 전형이 된다.

이 연구는 문화생태적 관점으로, 마을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적응과 존속 과정에서 풍수문화는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 마을 풍수의 구조와 형태, 코드(방식)와 프로세스는 어떠하였는지 지리산권역의 마을을 사례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리산권역 마을이 갖춘 풍수문화와 풍수경관이 오늘날에 어떤 자원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국적 문화(생태)경관의 전형으로서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와 초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을생태가 갖는 문화적 요소와 문화생태 분야에서 풍수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한국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풍수문화와 풍수경관의 문화생태적 가치를 조명한다.

둘째, 지리산권역의 마을을 사례로, 풍수형국을 통한 주민들의 마을환경에 대한 문화생태적인 대응관계를 고찰한다.

셋째, 풍수를 환경적, 문화생태적 관점으로 새롭게 개념 정의하고, 마을 풍수에 대해 문화생태적인 이해와 해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마을의 풍수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동안 지리, 건축, 조경, 환경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별 유명 班村이나 동족촌의 입지, 경관 및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이론체계의 적용과 설명이 대부분이었고, 근래에 와서는 마을풍수를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담론적 구성물로 재해석한 土族村의 풍수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1] 풍수를 생태학과 관련시킨 연구는 근년에 비교적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편이며,[2] 그 중에서 마을풍수에 한정시킨다면 풍수의 생태적 이해를 통해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을 해석한 논문도 있다.[3] 그렇지만 한국의 전통마을에 미친 풍수적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 마을에 대한 양적, 질적인 풍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마을풍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석도 요청된다.

본문에 인용된 사례 마을의 풍수관련 사실과 내용은 『지리산권 풍수자료집』과 기초답사에 근거하였다. 『지리산권 풍수자료집』은 지리산권의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서 발행한 향토지 문헌자료와 마을소개 온라인 자료 중에, 마을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풍수 설화나 민담 등을 취합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풍수적 인식과 태도를 가감 없이 잘 반영하고 있는 현장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맺음말에서는 근간에 국내외적으로 주목되는 '문화적 경관'에 대한 자원가치를 환기하면서[4], 지리산권 마을의 풍수문화와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가치 및 활용방안을 전망했다. 지리산지 자연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풍수문화경관은 역사문화유산이자 문화생태적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 이에 지리산권 '문화생태마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지정, 관리방안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2. 지리산권역의 마을 풍수

1) 풍수형국과 문화생태적 대응

지리산지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받은 풍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리산인접권역에 해당하는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관내의 자연마을에서는 아래의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500여개가 넘는 수많은 풍수 형국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산권역의 마을에 풍수문화가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표 1. 지리산권 마을의 풍수 형국 집계

형국 / 지역	자연지형	인문경관	신성물	길짐승	날짐승	수중생물	곤충	식물	사람	신체	물건	문자	기타	총계
남원	13	1	20	39	13		13	19	18	1	18	1	2	158
구례	2	1	12	14	7	2	4	4	7		20	1	4	78
하동	2	1	18	46	33	4	7	11	12	1	12		3	150
산청			4	20	10		2	8	10		21			75
함양	1	1	4	14	9			2	4		12	2		49
합계	18	4	58	133	72	6	26	44	51	2	83	4	9	510

자료: 최원석, 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회.

주민들의 환경 적응과정에서 문화생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풍수적 형국은 마을의 해당 형국에 상응하는 주민들의 문화생태적 대응 및 상호관계의 코드를 형성시킨다. 지리산권역의 풍수 형국을 자연지형, 인문경관, 신성물, 길짐승, 날짐승, 수중생물, 곤충, 식물, 사람,

표 2. 지리산권 마을의 풍수형국과 주민들의 문화생태적 대응관계 사례

형국명	대응관계	소재지(마을명)
나무 형국	벌목 금지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외지
옥녀가 베 짜는 형국	베틀 자리에 지형훼손 금지	남원시 보절면 금계리 금계
배 형국	우물 굴착 금지 조산 조성 돛대(솟대) 조성 사공 상징물(석불) 조성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고외,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죽연 남원시 조산동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 산청읍 묵곡,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황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단계
자라 형국	다리 가설 금지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청계
개머리 형국	대문 설치 금지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양강리
노루 형국	개 사육 금지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관곡
반달 형국	마을규모-호수(15호) 제한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하동산
지네 형국	지네밟기 의례(당산제)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괴양
봉황 형국	대나무 숲 조성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하대
소 형국	소울타리(숲) 조성 草峰으로 상징 지명 부여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수척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개구리 형국	마을입구에 비보석 조성-뱀 형국의 진입로 차단 가림막(숲) 조성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평촌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형국	마을 앞 남근 형상 산줄기(소좇날)의 기를 막는 돌비석 조성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붕어 형국	샘 파기 금지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신기
꾀꼬리가 알 품는 형국	소란(농악) 금지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유평
닭이 알 품는 형국	닭울타리(숲) 조성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계산
오리 형국	소란(농악) 금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오평

* 기초답사 및 문헌자료(최원석 · 구진성 편저, 2010)

신체, 물건, 문자, 기타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지리산권 마을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세부 풍수형국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최원석, 구진성 편저, 2010, 7).

① 자연지형 : 산, 달, 구름
② 인문경관 : 전쟁터, 성곽, 고관대작의 관저
③ 신성물 : 거북이, 용, 봉황, 잉어
④ 길짐승 : 개, 개구리, 곰, 노루, 말, 뱀, 소, 쥐, 호랑이, 돼지, 토끼, 고양이, 코끼리, 살쾡이, 자라
⑤ 날짐승 : 꿩, 꾀꼬리, 까마귀, 제비, 독수리, 갈매기, 닭, 학, 비둘기, 오리, 매, 거위, 앵무새, 기러기, 황새, 까치
⑥ 수중생물 : 게, 새우, 붕어
⑦ 곤충 : 나비, 누에, 지네, 거미, 개미, 벌
⑧ 식물 : 꽃, 연꽃, 나무, 밤, 매화, 배, 배꽃, 고추, 칡덩굴
⑨ 사람 : 乳兒奉母, 玉女織錦, 玉女彈琴, 將軍對坐, 무사가 말을 탄 형국, 老僧禮佛, 아홉재상(九相)
⑩ 신체 : 성기, 눈썹, 다리
⑪ 물건 : 배(舟), 활, 다리, 조리, 벼 낟가리, 솥, 가마솥, 도장, 괭이, 거문고, 징, 부채, 활촉, 등잔, 붓, 옥(玉), 물레, 길마, 돛, 사다리, 술병, 벌통, 금소반, 활시위대 손잡이, 金絲玉尺, 金環落地, 風吹羅帶, 실을 감은 형국
⑫ 문자 : 玄字, 介字, 一字
⑬ 기타

풍수는 토지이용과 수자원 이용, 주택과 취락의 조성, 지형의 해석, 경관의 창출, 그리고 공간지각과 같은 한국인의 문화전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전국에 그 현장과 설화가 남아있다(윤홍기, 2010). 지리산권역에도 풍수는 주민들의 환경인식 틀이자 문화생태적 적응 형태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형식은 形局이라는 표상을 매개로 마을의 국지(미시)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앞의 〈표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리산권 마을의 풍수형국은 주민들의 문화생태적 대응의 매개가 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풍수형국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마을풍수의 문화생태적 연결고리 및 구성체계

〈표 2〉에서 예시하였던 마을주민들의 풍수와 관련된 문화생태적 대응관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면, ① 취락 입지 및 인구 유입, ② 토지이용 및 건축·생산활동의 규제, ③ 환경용량(수용능력)의 규준, ④ 환경관리(자연재해 방비와 자원환경의 보전), ⑤ 환경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의식과 태도의 형성, ⑥ 식생 선택의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지리산권역의 해당 사례(구전 및 실제)를 예시하여 살펴본 후에 그 문화생태적 의미를 해석해 보기로 하자.

(1) 마을 입지 및 인구 유입

풍수는 마을의 입지 발생과 인구의 이동을 유발하는 영향력 있는 문화요소로 작용하였다. 풍수지식인이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명당지로 인식되거나 지목된 장소에는 마을이 새로 형성되거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정감록』의 비결과 十勝地 관념도 지리산권역의 마을 생성과 인구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는 풍수 명당지라는 판단으로 인해 입지가 선택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이 형성된 한 사례가 된다.

> 1620년경 淸州韓氏 중시조가 송동면 백평마을에서 거주하다가 판서댁에 가던 중, 산세가 빼어나고 花心같은 봉우리가 뻗어 끝이 뭉쳐지고 비단처럼 시냇물이 조용하게 흐르는 이곳을 발견하였다. 화심명당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터를 잡아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후 화심명당 옆에서 살면 자손이 융성하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하여 산내면 덕동에서 晉州姜氏가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지리산 운봉에는 십승지의 하나가 있다고 『정감록』에 지목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를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인 운봉현 행촌으로 생각하고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 마을이 번창하였다. 또한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구상마을은 구한말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정감록 비결이 성행하자 자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문들이 피난지로 알고 찾아와 거주하게 됨으

로써 큰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2) 토지이용 및 건축·생산활동의 규제

풍수는 마을지형의 형국과 관련된 특정의 생산활동과 건축활동을 규제하고, 또 특정 장소의 토지 이용을 제한시킴으로써 마을환경과 식생의 보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입지지형을 풍수형국이라는 경관이미지로 이해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생산활동 및 토지이용의 과정에서 해당 풍수형국에 危害가 된다고 판단되면 마을공동체의 환경생태적인 보전을 위하여 그 이용과 활동을 규제(禁忌)한다. 이와 같은 풍수형국에 기인된 토지이용의 제한 사례는 하동군 고외마을, 남원시 외지·금계마을 등지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풍수적 배(舟) 형국에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고외마을은 마을의 지형이 배 앞부분과 같이 닮은 지형이라 하여 배설(배혈)이라고 한다. 배의 밑바닥이 구멍이 나면 침몰하게 되므로 깊게 파는 우물이나 지하수 개발 등을 금기시 하였다.

>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이동 마을은 풍수지리상 배 형국이다. 마을에 우물을 두 개나 파서 배가 좌초되는 형세가 되므로 마을이 발전할 수 없다고 한다.

> 남원시 보절면 금계리 금계마을은 옥녀봉 밑에 자리 잡았다. 금계마을은 옥녀가 베를 짜는 형국(玉女織錦形)으로 마을 주민들은 인식한다. 마을 복판에 집을 지으면 집이 쓰러진다 하여 마을 중앙을 경계로 아래와 위쪽에 집을 지었으며, 우물을 파면 베틀을 놓을 수 없다 하여 우물을 파지 않았다.

외지마을의 경우에 풍수는 마을 특정 장소의 벌목을 막고 마을의 식생을 보전하는 문화생태적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외지마을은 마을이 나무혈이어서, 날들에서 나무를 베면 액운이 온다고 믿는다.

풍수형국에 기인된 건축 규제의 사례는 남원시 청계마을과 양가리에서 나타났다. 청계마을이 경우에는 풍수가 마을의 다리 가설을 막는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마을이 근대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역기능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청계마을은 자라형국이라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는 것을 금기로 한다. 다리를 놓으면 자라가 다리를 건너가 마을 복도 함께 나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양강리는 마을지형이 개의 머리 형국이어서 마을 이름을 개머리라고 했다. 대문을 달면 개의 입을 막는다고 하여 집에 대문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

풍수형국으로 인한 생산활동 및 문화활동의 규제 사례는 하동군 관곡마을에서 나타났다.

>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관곡마을은 마을 뒷산을 노루혈이라 하였는데, 마을주민들은 노루가 놀라 도망칠까 봐 예부터 개 사육을 금하였고 정초에는 풍물놀이를 금기시하였다고 한다.

(3) 환경용량(수용능력)의 규준과 적정 주거 밀도의 유지

주민들은 풍수의 형국에 근거하여 마을의 戶數를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의 규모(수용 능력) 및 적정 주거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풍수는 주어진 입지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용량과 주거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의 담론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하동산 마을에서 그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 마을의 지형은 형태가 반달형으로 보름의 주기인 15戶 정도 살면 부자로 살 수 있고 15호가 넘으면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4) 환경관리: 자연재해 방비와 자원환경의 보전

풍수는 전근대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적 지식체계였기에, 마을의 지형적 입지에 연유한 風水害, 화재 등의 자연재해를 방비하고 수자원 등의 자원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풍수적

환경관리는 숲의 조성이나 조산, 마을 지형의 보수 등의 방식으로 행해졌다. 풍수해 방지 및 수자원 보전을 위해서 마을숲을 조성한 사례는 지리산권역의 마을에서 다수 나타난다.

그 중 한 사례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의 마을숲을 살펴보자. 행정마을에는 풍수가 동기가 되어 조성된 서어나무 마을숲이 있다. 마을 북쪽의 소하천 合水處 內에 조성된 이 마을숲은 마을의 수해와 풍해를 방비하는 기능을 한다. 俗傳에 의하면, 180여 년 전, 마을이 자리 잡은 지 얼마 후에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마을의 북쪽이 허하니 돌로 성을 쌓거나 나무를 심어 보완 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 뒤로 해마다 병이 돌고 수해를 입는 등 재난이 끊이지 않자 지금의 자리에 숲을 가꾸었다고 한다.[5)]

남원시 옥전마을에서는 마을지형의 풍수적 보완과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개울을 보수하고 수로를 고쳤으며, 남원시 조산동은 흙둔덕을 쌓아 조산하였는데 이 역시 남원고을의 수자원 관리를 꾀하는 풍수적 보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옥전마을에서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이 막힘이 없이 곧바로 흐르니 마을에 재물 축적이 안 되고 흘러내린다고 믿었다. 약 400여 년 전에 옥전리와 평촌리 사이에 수구막이를 설치하여 직선으로 흐르는 개울을 곡선으로 흐르도록 변형시켰으며 개울 양쪽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 남원시 조산동은 풍수지리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남원의 지세가 行舟形이어서 재물이 모이지 않고 인재가 나지 않으므로 지세의 허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곳에 인공으로 토성을 쌓고 배를 매어두는 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造山이라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화재 방비를 위한 수경관(못)을 조성한 사례는 하동군 종화마을에서 나타났다.

>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종화마을은 입지 지형이 오행상으로 화기가 비치어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조그마한 못을 파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5) 환경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의식과 태도의 형성

마을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집단적 의식은 풍수적 상징 및 의미체계로서의 지명, 설화, 의례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공유되고 이것은 다시 주민집단의 풍수적 대응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민들은 마을의 풍수형국에 연유된 지명과 설화(특히 금기설화), 의례 등을 통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공동체적인 공간지각을 하고 집단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명에는 주민들이 인식하였던 땅에 대한 생김새와 장소적 성격이 표현되어 반영되어 있고, 지명을 지었던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지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천하지만 풍수사상의 영향 또한 매우 컸다. 풍수문화가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으로 풀이된다. 지명을 통하여 주민들은 해당 취락의 풍수적 환경인식과 상호간의 문화생태적 구성관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이루었다.

설화는 지역주민들의 풍수적 인식 및 태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소재가 된다. 일반민중들은 문자로 된 기록 대신에 설화를 통해 영향력 있는 풍수적 인식 및 태도를 전승시키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정착시키기 때문이다. 풍수지명이 지역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표징하는 것이라면, 풍수설화는 지역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회집단적인 태도과 윤리성이 내재되어 있다.

의례는 주민들의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환경심리 및 이에 대한 대응양식의 집단공통체적 실천으로 재현된다.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괴양마을에서 당산제로 진행하는 삼동굿놀이(지네밟기)는 마을제의와 풍수가 복합된 형태의 제의로서 주목된다. 양촌마을의 뒷산인 계룡산에 명당이 있는데 음촌마을의 날줄기가 지네혈로 계룡산을 넘보고 있어 이 지네의 혈기를 막기 위해 의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을에 전승되는 지네밟기 노래는 다음과 같다.

> 삼괴정이 우리동민 지네밟기 힘을 쓰세 / 삼강오륜 예의촌은 삼괴정이 이 아닌가?
> 삼태화백 계룡산에 영계옥진 대명당은 / 삼정승이 난다하고 자고지금 전해왔네

삼생굿을 저 지네가 삼백육순 欲侵하니 / 삼동굿을 마련하여 삼동으로 밟아내세
삼십삼천 도솔천명 저 지네를 反復시켜 / 삼재팔난 물리치고 삼괴정이 부흥한다.
얼럴럴 지네밟기 일심으로 지네밟세 / 얼럴럴 지네밟기 일심으로 지네밟세

(6) 마을식생 수종 선택의 문화생태적 요인

풍수형국에 기인한 주민들의 문화생태적 의식과 대응은 마을 식생의 수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봉황형국에 대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하대마을이 그 한 사례인데, 이 마을의 지형은 풍수적으로 飛鳳抱卵의 형국으로 봉황은 대나무 열매(竹實)을 먹는다고 하여 대나무숲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연유되어 마을이름도 대실이라고 불렀다. 이는 봉황 형국에 대나무숲 경관의 조성이라는 문화생태적 대응과 의미체계를 구성한 것이며, 풍수적 환경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태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마을풍수의 사례에 대한 문화생태적 의미체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3. 마을풍수의 문화생태적 해석

1) 풍수형국의 상징적 표상과 문화생태적 대응

현대 학문적인 해석체계로서의 풍수 논의는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상징체계로서의 풍수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생태로서의 풍수이다.[6] 상징체계가 풍수의 자연인식 및 자연관의 의미체계에 중점을 둔 이해방식이라면, 문화생태는 풍수의 환경적응과 문화경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운용된 풍수는 상징체계와 문화생태가 융·복합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마을 풍수에 있어서 풍수형국이라는 상징적 표상은 마을주민들의 문화생태적 대응 및 문화경관의 조성과 긴밀하게 연관된 작용기제(프로세스)를 이룬다.

지리산권역의 마을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풍수에 관한 민간의 구전, 설화, 지명 등의 자료를 개관할 때, 주민들의 마을환경에 대한 풍수적 적응 및 대응 방식은 풍수형국이라는 코드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맺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풍수에 있어 상징체계와 문화생태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전근대 시대에 마을공동체에 통용되었던 '풍수형국'이라는 상징은 문화생태적으로 '국지적 마을환경'이라는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소'라는 풍수 형국명은 주민들이 마을의 미시환경이나 국지환경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용어였다.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의 입지지형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을공동체의 사회집단에 의해 소 형상(머리와 배, 꼬리 등)과 부수물(구유, 소꼴 등)의 경관상이 연상되어 대응 관계 및 태도를 낳는 이미지이기도 하며, 계기적으로 소에 대한 풍수적 지명, 설화, 의례 등의 2차적 기호가 발생되는 텍스트로서의 의미체계이기도 하였다[9](그림 1).

주민들이 인식하는 기호적 의미체계로서의 마을지형에 대한 풍수형국은 객관환경에 대한 인지환경이자 표상환경이다. 중요한 점은 그 형국에 연유한 풍수적 태도와 대응을 유발시켜 마을경관이나 환경관리에 작용하는 문화적 배경요인이 된다는 데 있다(그림 2). 흔한 예로써 배 형국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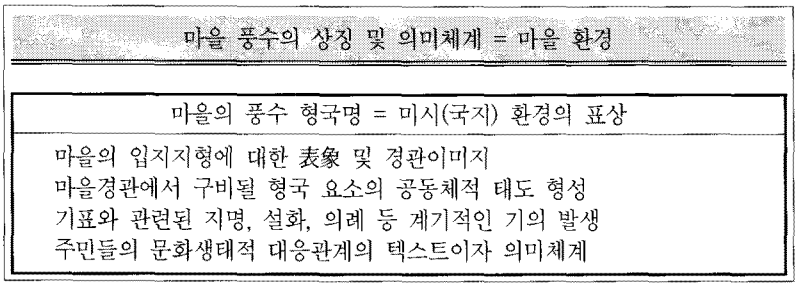

그림 1. 마을 풍수와 형국의 상징 및 의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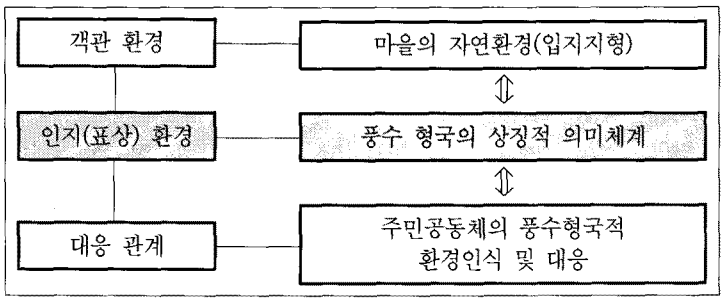

그림 2. 풍수 형국을 통한 주민의 마을환경에 대한 관계 프로세스

에서는 우물 파는 것을 금기로 한다거나, 봉황 형국의 지형에서는 대나무숲을 조성하는 등의 대응방식이 그것이다. 지리산권 마을들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공동체에서는 형국이라는 인식틀을 통해서 마을의 입지환경을 이해하고 자연환경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적응, 대응하였다. 따라서 풍수 형국은 주민공동체의 문화생태적 대응관계를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 체계였던 것이다.

2) 마을풍수의 문화생태적 구성요소와 작용체계

문화생태학에서는 인간이 문화를 통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총칭하여 적응 전략이라고 한다. 문화생태학적 연구는 문화적 적응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의 적응전략과 그 변화에 주목한다. 적응 전략은 인간이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파, 학습된 문화 행위들로서, 고유한 문화와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택된 것들이다(류제헌, 1994, 38-40). 이런 의미 맥락으로 보자면, 풍수는 전근대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유력한 적응전략의 문화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적인 환경 적응 전략의 구성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

마을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생태적인 상호관계 및 적응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풍수 구성요소로는 풍수입지, 풍수지명, 풍수설화, 풍수의례, 풍수비보 등이 있다. 풍수입지는 마을이 처한 자연환경의 조건을 규정하고, 풍수지명은 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표징하여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풍수설화 및 금기는 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회집단적인 태도와 윤리성(환경윤리)이 내재되어 있고, 풍수의례는 주민들의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환경심리 및 대응양식과 관련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풍수비보로써 마을입지 보완 및 마을경관에 대한 환경관리를 한다(그림 3).

구성요소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생태적 상호관계 및 적응방식
풍수입지	자연환경 조건의 규정
풍수지명	자연환경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인식
풍수설화	자연환경에 대한 사회집단적 태도와 윤리
풍수의례	자연환경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환경심리, 대응양식
풍수비보	마을 입지조건의 보완 및 마을공동체의 환경관리

그림 3. 마을주민의 풍수문화적 상호관계 및 적응방식의 형태

풍수문화를 통한 환경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마을주민들의 문화생태적 작용 메커니즘은 〈그림 4〉와 같다. 주민들의 풍수적 인식, 태도, 적응의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된 풍수경관은 마을공동체와 환경 간에 문화생태적 관계구축의 가시적 코드를 형성한다.

풍수는 전통시대의 한국사회에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환경조건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문화생태적 코드이자 관계 조절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앞에서

사례를 통해 서술하였지만, 풍수는 마을의 공간적 입지를 규정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생산 및 건축 활동과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환경보전적 역할도 하였으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한 환경용량의 규준과 환경관리를 이끄는 원리가 되었다. 또한 풍수는 환경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의식과 태도를 형성케 한 강력한 문화요소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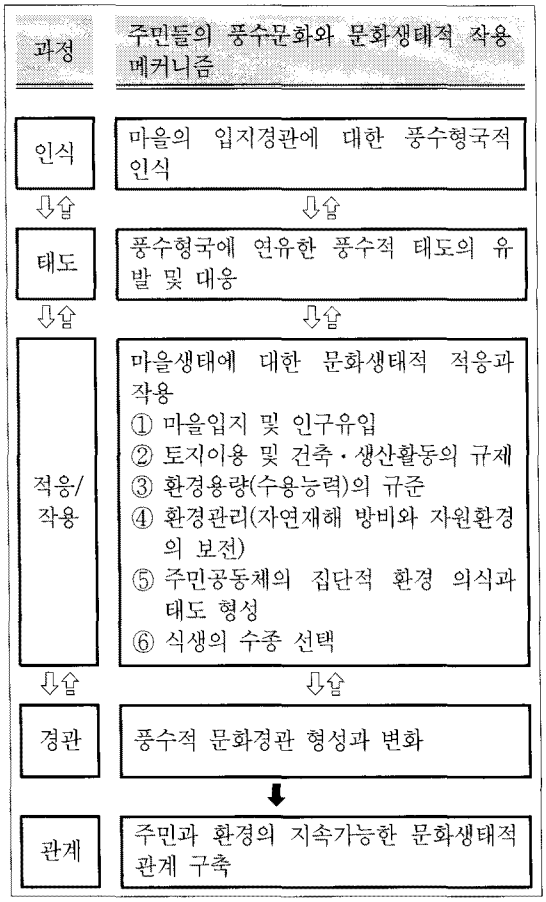

그림 4. 주민들의 풍수문화적 적응 전략과 기능

3) 풍수의 문화생태적 개념 정의

근래에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담론이자 용어 중의 하나는 '환경'이라는 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환경이라는 말은 environment의 현대적 번역어이다. 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 전통시대에 오늘날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말은 무엇일까? 산수 혹은 산천 등의 용어가 일반적이었지만, '풍수(지리)'도 환경과 같은 의미체계로 흔히 쓰였다.

風水는 『錦囊經』이라는 풍수경전에서도 말했듯이 藏風得水에서 비롯된 말로서, 바람과 물이라는 자연에너지와 환경자원을 실생활에서 이용하기 위한 경험적 지혜의 축적이었다. 풍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주민들의 생활사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주거환경 시스템에 대한 평가지표임과 동시에 자연재해(風水害)에 대한 방어적 지식체계이기도 하였다. 전근대에 풍수라는 말에 담긴 의미체계는 자연, 생태, 지리, 지형, 하천, 천문, 기후,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뭉뚱그려진 것으로서, 동아시아의 생태학적 인식에 나타난 거대담론체계이었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풍수라는 말을 마을의 자연환경적 조건을 총칭하는 의미체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옛 어른들이 어떤 마을을 보고 '풍수가 좋다'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마을의 '환경이 좋다'는 말로 이해해도 전연 무리가 없다. 풍수에서 '명당'이라는 말은 최적의 환경생태적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마을의 풍수를 본다'는 말은 '마을의 환경평가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조선시대 풍수지식인(승려, 유학자, 지관 등)이 어떤 마을을 지나치면서 '이 마을은 풍수가 안 좋으니 동구에 숲을 조성하라'는 말은 '마을의 미기후적이고 경관생태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숲을 조성하라'는 당시 환경전문가의 조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리산권역의 대부분의 마을에는 풍수 형국이 있었을 터인데, '이 마을은 (어떤) 형국'이라고 한 말에는 마을 지형의 모양새에 대한 단순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은 해당 마을의 구체적인 국지환경 혹은 미시환경의 표상으로서 마을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규정하는 문화생태적 틀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시대에 풍수는 마을의 자연환경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사회공동체적 담론체계이자 이론체계로서 기능함으로써 그것은 오늘날의 '환경'이라는 용어의 쓰임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보자면 동아시아에서 '풍수(지리)'는 '산수' 등과 함께 '환경'이라는 말 이전에 쓰인 원형적인 용

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생태적 관점으로 풍수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의 동아시아에서 형성, 발전된 풍수사상 및 풍수학은, 온대 계절풍지대 자연환경에서의 적응, 농경을 위주로 한 생산관계 및 농업생산력 수준, 그리고 정착적인 주거문화의 생활양식이라는 배경 조건에 기초하여 정립된 환경사상 및 환경학이다. 풍수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문화생태학(혹은 경관생태학)이며, 자연과 인간 관계의 공간적 방식이다. 풍수적 최적입지처로서의 '명당'이란 최적의 자연환경 및 생태 조건을 갖춘 공간 모형이고, 풍수적 비보'는 경관생태 모듈의 보완을 위한 환경관리 방법이다. 한국의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共進化된 산물인 풍수의 상징과 지식 체계는,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문화경관의 입지 및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자연경관을 문화경관으로 바꾸는 인자로 작용하였다.

5. 맺음말

이 글은 지리산권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삼아, 마을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 적응에 큰 역할을 한 풍수문화의 구성과 형태, 기능, 구조, 프로세스 등을 분석하였다. 풍수문화와 풍수경관이 갖는 자원가치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활용방안을 전망하고자 했다.

전근대사회의 주민들에게 있어 풍수는 오늘날의 환경이라는 의미체계로도 쓰였다. 마을 풍수를 보는 것은 마을환경 시스템을 평가,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풍수 형국은 마을의 국지환경을 표상하는 용어였다. 풍수학은 현대적인 학문분야로 문화생태학 및 민속생태학적인 사고체계였다.

마을주민은 마을환경에 대해 풍수 형국이라는 기호 및 상징체계의 코드로 소통하고 관계맺는 문화생태적 환경적응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리산권역 자연마을에도 500여개가 넘는 수많은 풍수형국이 나타났다. 그것은 주민들의 형국에 상응한 문화생태적 적응 및 대응관계를 형성시키고, 풍수적 문화경관으로 가시화되었다. 마을주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풍수문화적 적응의 연결고리와 구성체계는 풍수입지, 풍수지명, 풍수설화, 풍수의례, 풍수비보 등이 있었다. 풍수문화를 통한 환경 적응의 기능적 메카니즘은 마을의 공간적 입지 규정 및 인구 유입, 생산 및 건축 활동과 토지이용 규제, 마을의 환경용량(수용능력) 규준과 환경관리, 주민공동체의 집단적 환경의식과 태도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생태적 기능을 통해 주민과 환경 간에 상호관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요컨대 마을의 풍수문화는 처한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적 적응전략으로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문화생태학적 방식이자 지식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풍수문화가 잘 보전된 마을은 한국적인 문화생태마을의 전형이다.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지리산권 마을공동체의 풍수문화는 사라져가거나 진정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생태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지리산권의 마을 풍수와 마을 풍수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형성 및 적응전략인 생태적 문화전통이자 지식체계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리산지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문화유산이자 문화생태적 관광자원으로서 재평가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지리산의 풍수는 지리산의 환경이자 문화생태의 원형이며, 풍수경관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적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1994년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결합된 문화유산을 주목한 바 있다. 그래서 필리핀의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1995)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의 와차우 문화경관(Wachau Cultural Landscape)(2000), 스페인의 아란후에즈 문화경관(Aranjuez Cultural Landscape)(200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푼구베 문화경관(Mapungubwe Cultural Landscape)(2003), 가봉의 로페-오칸다 생태계 및 잔존 문화 경관(Ecosystem and Relict Cultural Landscape of Lopé-Okanda)(2007) 등을 세계유산으로 지정, 등재한 바 있다. 작년에는 한국의 하회, 양동마을이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Historic Villages of Korea: Hahoe and Yangdong)(2010)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리산권 마을이 지닌 문화경관(지리산 문화경

관, Jirisan Cultural Landscape) 혹은 풍수경관은 자연과 문화가 탁월하게 유기적으로 조화, 결합된 문화생태적 경관으로서 세계유산적 경관가치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에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리산권 마을이 지닌 문화생태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및 보존관리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생태마을(文化生態村) 혹은 풍수마을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전방안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문헌자료와 기초답사에 근거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례 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현지조사와 현장분석을 통한 해석연구는 후속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謝辭

이 논문을 읽고 코멘트 해주신 경상대학교 김덕현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주

1) 최원석, 2010,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65-274.
2) 환경생태학적으로 풍수를 해석한 근래의 저술 들은 아래와 같다.
김희경, 2001, 한국의 풍수지리 사상과 심층 생태학, 기호학 연구 9, 108-135.
김은주·류호창, 2002, 풍수지리사상적 관점에서 본 전통 주거 공간구성의 생태학적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제3권 1호, 189-197.
임재해, 2002, "풍수지리설의 생태학적 인식과 한국인의 자연관,"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163-236.
윤홍기, 2004, "풍수지리의 환경사상," 한국의 전통생태학 1, 사이언스북스, 48-75,
권선정, 2004,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지리학연구, 제38권 3호, 259-271.
성동환, 2005, 풍수 개념 속의 생태논리와 생태기술, 대동문화연구 제 50집, 503-534.
김병주·이상해, 2006,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 건축역사연구 15(2), 147-154.
Ock, Han Suk, 2007, A Study on Korean Pungsu as an Adaptive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42 No.5, 761-768.
3) 김병주·이상해, 2006,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 건축역사연구 15(2), 147-154.
4) 양보경, 2009, 문화적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문.
5) 최원석, 2010, 지리산의 지식인 도선과 풍수적 이상사회 담론, 2010년 지리산권문화연구단 국제학술대회(지리산 그 곳에 길이 있다) 발표자료집, 250.
6)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경상대 김덕현 교수의 코멘트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7) 최원석·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회
8) 실제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에서는 마을터가 소(臥牛) 형국이어서 마을 앞에 있는 봉우리 이름을 소가 먹을 풀(꼴)을 상징하는 草峰으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다.

문 헌

김병주·이상해, 2006,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 건축역사연구 15(2), 147-154.

류제헌, 1994, 한국의 근대화와 역사지리학-호남평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양보경, 2009, 문화적 경관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문.

윤홍기, 2010, 행주형 풍수형국의 문화생태, Pungsu: Korean Geomancy in Cultural Ecology, 영문판 풍수단행본 제3차 워크샵 자료집, 52-67.

최원석, 2010a,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65-274.

최원석, 2010b, 지리산의 지식인 도선과 풍수적 이상사회 담론, 2010년 지리산권문화연구단 국제학술대회(지리산 그 곳에 길이 있다), 논문집, 219-260.

최원석·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회, 서울.

Ock, Han Suk, 2007, A Study on Korean Pungsu as an Adaptive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42 No.5, 761-768.

(접수: 2011.3.13, 수정: 2011.4.10, 채택: 2011.5.8)